

근대 동아시아 설탕 시장과 홍콩 제당업* —상인 디아스포라는 지속가능한가?

강진아

들어가며

지난 2019년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홍콩, 정치적으로는 일국양제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었다. 그런데 홍콩 사태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줄곧 누려온 자유항으로서의 지위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콩은 영국의 원동 식민지로 개발되어, 국가권력에 의한 적극적 보호도 없지만 규제도 없는 비교적 순도 높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성장했다. 개혁 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에 위해 최대한 중앙의 개입을 자제하는 경제 정책을 폈으므로, 홍콩 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존중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경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과 강력한 보호 및 관리 규제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또 이러한 개입이 초고속 성장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행정적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홍콩은 가장 대범하게 중국 모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050).

홍콩은 영토상 중국에 속해 있으나 싱가포르와 더불어 자유항으로 탈-국가권력의 자립적 성장을 한 지역이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이래 오늘날까지, 홍콩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형의 보호주의적 자본주의의 사조와 늘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성장해왔다. 이 대결 구도에서 홍콩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였다. 19세기 영국제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 영국은 전 세계 영토의 거의 절반을 식민지화하며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타국에도 자유주의를 요구하였고, 영국 상인들은 전 세계 항구와 도시에 진출하여 영국 산업자본주의의 상품, 제도, 문화를 이식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진출한 영국 상인들이 건설하고 성장시킨 곳이 홍콩이다. 홍콩은 상해 등 중국 각 개항장과 연이어 개항한 일본과 조선의 각 개항장을 잇는 교역 네트워크의 총본산이 되었으며, 본국 영국의 경제 중심지 런던과 동아시아 비즈니스를 운송, 금융, 무역에서 링크시켰다.

필자는 19세기 초·중엽에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19세기 후반 뚜렷하게 현지화하기 시작한 이들 동아시아의 영국 상인 자본을 ‘상인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재외 중국 상인자본의 명칭인 ‘화교’에 빗대어 ‘구교(歐僑)’라는 명명을 제안한 바 있다. 즉 근대 동아시아의 영국 자본은 주로 ‘양행(洋行)’으로 불리며 제국주의적 자본 진출로 파악되어왔으나, 이러한 이미지가 가려왔던 ‘현지화’와 ‘탈국가화’의 성격을 디아스포라로서의 성격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화교’ 개념에 상응하는 ‘구교’로 달리 부름으로써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화교’와 ‘구교’는 모두 영국 제국주의가 제창했던 자유주의적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상인 디아스포라’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에서 ‘화교’ 자본의 성장은 ‘구교’, 특히 영국 자본의 확산 및 성장 과정과 동반하여 이뤄졌다.¹⁰⁰⁾ 일국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시장에서 영

국 상업자본과 국내 중국 상업자본 간의 경쟁은 제국주의 자본과 민족 자본의 경쟁으로 단순 치환된다. 하지만 동아시아 시장으로 넓혀볼 경우 영국 상업자본과 해외의 중국인 자본은 굳건한 협력 관계를 다지며 동아시아 시장을 선점했었다. 이들의 공조(共助) 관계는 일부 영국 상업자본이 홍콩에 제조업 투자를 하면서 산업자본화하자, “생산은 홍콩 영국자본, 유통은 화교 자본”이 분업하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그런데 이 공조 관계는 일본이 ‘국가 개입형의 보호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며 후발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맹성장하면서 흔들리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을 제당업을 사례로 살펴보려 한다. 동아시아 제당업의 구조적 전환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몇 편의 글을 쓴 바 있다.⁰⁰² 동아시아 시장의 양대 정제당 산업 지역이 일본과 홍콩이었는데, 홍콩 최대의 제당자본인 스와이어사(John Swire & Sons Limited)의 태고(太古, Taikoo) 설탕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구교 자본’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⁰⁰³

지난 20여 년 사이에 제당업의 역사에 관해 국내외 관련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진척되었다. 무엇보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학계에 한국사에서 이은희, 중국사에서는 정영구 등 신진 연구자들의 활약으로 적지 않은 수의 동아시아 제당업 관련 논문들이 발표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⁰⁰⁴ 설탕은 근대 세계체제하에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세계 구석구석의 사회생태계를 바꾼 대표적 국제 교역 품목이었기 때문에 서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뛰어난 연구들이 쏟아졌었는데, 주로 카리브해 설탕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⁰⁰⁵ 이후 설탕에 관한 대중서에 중국사 연구자가 협업하면서 동아시아 관련한 서술이 늘어났고,⁰⁰⁶ 중국 제당업에 관한 고도로 학술적인 전문서 역시 출간되었다.⁰⁰⁷ 무엇보다 홍콩 제당업과 동아시아 제당시장에 관한 전문 학술서가 지난 2~3년 사이에 각국에서 출판되었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 스와이어

시(현 Swire Group)가 기증한 런던대학 SOAS 도서관 소장 스와이어 당안(the Swire Archive)을 열독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시기를 같이하여 홍콩 학자 종보현(Chong Po Yin, 鍾寶賢)의 스와이어사 연구, 히라이 켄스케(平井健介)의 일본 제당자본과 아시아 시장에 관한 연구, 스기야마 신야(杉山伸也)의 일본과 영국 자본의 경쟁에 관한 연구가 출판되어, 필자의 연구 계획에서 규명하려던 내용이 상당 부문 해명되었다.⁰⁰⁸

스기야마는 1980년대 이래 글로버상회(Glover and Co.), 스와이어상회 등 일본과 중국에 진출한 영국 자본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이며 홍콩 제당업에 관해서도 다수 논문을 써왔다. 그리고 2017년의 최신작에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명확한 ‘영일(英日)’ 경쟁의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 저작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가장 자극이 된 것은 히라이 켄스케의 책이다. 이 책은 일본제국을 “설탕의 제국”으로 지칭하고 일본 제당업 건설과 동아시아 시장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추적하였다. 무엇보다 통계의 방대함과 정확함에 더하여, 세계 제당업 전체의 판도를 읽어가면서 자바당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여, 그간 중국 시장을 둘러싼 일본당과 홍콩당의 경쟁에서 빠져 있던 퍼즐을 깔끔하게 채웠다.⁰⁰⁹ 종보현의 연구는 스와이어사 기업사 전반에 대한 연구이지만, 스와이어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영국 현지의 연구서들과 런던대학 소장 스와이어 문서를 광범위하게 참조하였다. 또한 놀랍게도 근대 상해 도시사 연구의 대가인 영국 브리스톨대학(Bristol University)의 로버트 비커스(Robert Bickers) 교수 역시 곧 스와이어 회사에 관한 단독 저서를 출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상인 디아스포라’의 제조업 활동으로서, 또 ‘국경을 넘는 글로벌 상품’이라는 면에서, 설탕 연구 붐이라고 할 만한 한국 및 세계 학계의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아마 설탕의 역사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자본, 이주, 국가권력, 생태, 생활문화의 각 측면이 모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쉽게도 최근 연구의 진전으로 개별 시장과 자본의 수치적 분석은 상당 부분 규명되었으나 동아시아 설탕 시장의 전체상을 균형 있게 그리고 있지는 못하다.¹⁰⁰ 중국, 일본의 연구 성과들은 중국 제당업 혹은 일본제국의 제당업을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세계 시장과 아시아 지역시장은 보조적으로 서술되거나 왜곡되어 있어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구의 저작들은 19세기 이전에 치중해 있거나 세계시장 변동과 아시아 시장 변동 사이의 유기적 관계 서술이 취약하다. 무엇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설탕 상품의 국제성에 주목하여 시장과 네트워크의 재편에 관심이 높다 보니, 시장을 규정하는 '국가'라는 요소는 조연으로 밀려나 있다.

하지만 설탕과 제당업의 역사야말로 국가권력이 어떻게 경제 행위에 단기간에 개입하고 시장을 재편하는가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또 다른 매력이 있다.¹⁰¹ 그리고 홍콩 제당업의 흥망성쇠는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미 1930년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설탕 시장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홍콩 제당업을 중심으로 그 절정기이자 쇠퇴가 시작되는 1925년까지를 살펴본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길항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동아시아 근대 설탕 시장의 재편 과정을 규명해보겠다.

1. 정제당 시대의 개막과 동아시아 설탕 시장의 재편

1) 19세기 정제당 시대의 개막과 아시아

설탕은 오랫동안 동서양 각지에서 제조되었고 주요한 교역 상품이었

지만, 규모에서나 질에서나 국제적 상품으로 등장한 것은 ‘설탕혁명(sugar revolution)’으로 불리는 근대적 제당업의 등장부터이다. 증기기관, 진공관, 원심분리기 등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제당업에 접목되면서 일어난 생산력 혁명은 1780년부터 시작되어 1814년에 정점을 찍었다.⁰¹² 사탕수수 즙을 짜서 끓이고 졸이는 재래식 제당 기법으로는 당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래당은 함밀당으로 분류되는데, 반면 기계화된 근대식 제당공장에서는 당밀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분밀당을 생산했다. 근대 제당공장에서 생산된 분밀당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원심분리기로 1차적으로 당밀을 제거했지만 당밀이 남아 있어 갈색 빛을 띠는 조당(粗糖)과 이 조당을 재차 정제하여 거의 완벽하게 당밀을 제거하고 영구 보존이 가능한 눈처럼 하얀 정당(精糖) 혹은 정제당, 그리고 조당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탈색을 해서 만드는 백당(白糖)이다. ‘설탕혁명’을 거치면서, 신대륙 카리브해에서는 원료당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 원료당은 다시 유럽으로 옮겨져 정당으로 정제되어 유럽 시장과 국제 시장에 상품으로 공급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사탕무당이 등장하여 세계 제당업 판도를 뒤흔들었다. 사탕무에서 채취한 설탕은 18세기 중엽 독일과 프랑스의 실험실에서 처음 제조에 성공했다. 그때까지 설탕은 사탕수수 즙을 정제해서 만든 자당(蔗糖, 혹은 감자당甘蔗糖, cane sugar)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탕무 즙에서 추출한 사탕무당(검채당甜菜糖, beet sugar)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탕무당 생산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열대 자당(蔗糖) 공급이 힘들어지자 독일을 선두로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등에서 유럽 농민이 재배한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 생산이 확대되었다.⁰¹³ 북유럽 중심의 사탕무당 생산은 1850년대 이래 세계 시장에서 비중을 늘려가, 1880년대가 되면 세계 설탕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⁰¹⁴ 생산비

로는 쌀 열대 자당과 경쟁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자급을 목표로 다양한 생산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진 덕분이었다. 사탕무당 생산국은 관세보호와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최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생산력 향상에 힘썼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당 생산기술의 개선에도 큰 자극제가 되어, 증기로 당액을 쾌속 증발시키는 진공팬(the Vacuum Pan)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제당업 전반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⁰¹⁵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인 인도와 중국을 끼고 있다. 중국의 제당업 기술은 화교를 통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퍼져나가 이 지역 제당업을 선도했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아시아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지역은 인도, 남중국과 대만, 태국, 필리핀, 자바, 베트남, 말레이, 류큐(琉球) 등 꽤 많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화교들이 16세기 중국 남부의 제당 기술을 답습하여 가축을 이용한 3중 맷돌로 설탕을 생산했다.⁰¹⁶ 인도와 중국은 자급 외에 수출까지 했고, 일본은 개항 이전에 류큐를 비롯해 시누키(巖岐)와 아마미 오오시마(奄美大島) 지역의 설탕 생산으로 쇄국하에서 설탕 자급을 달성했다.⁰¹⁷ 전통적 제당 기술로 생산된 함밀당은 인도에서는 다르(Jar), 중국에서는 적당(赤糖), 류큐에서는 흑당(黑糖)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선진 지역에서는 전통 기술로도 백당(白糖)을 생산했다.⁰¹⁸

그런데 대서양 지역의 혁신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동남아시아에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식되면서 전통 아시아 제당시장은 크게 바뀌었다.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제당기계는 영국에서 제작되어 1797년에 쿠바에 처음 설치되었고, 19세기에 들어 빠르게 카리브해에서 확대되었다. 신대륙 조당 생산에 적용되는 근대적 기술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830년 즈음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증기동력의 제당기계가 도입된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1830년대 중반 인도의 벵골, 마드라스 지역에 카리브해의

기술이 처음 도입되었고,⁰¹⁹ 1840년대부터는 모리셔스, 인도, 자바에서 거의 동시에 진공팬 등 선진 장비를 갖춘 제당공장이 생겨났다. 뒤를 이어 태국에서는 1860년대에 영국 자본 및 현지 화교 자본에 의해서, 말레이 반도에서는 1870년 즈음부터 기술 도입이 이뤄졌다.⁰²⁰

하지만 위와 같은 아시아에서의 기계화 시도는 거의 실패로 끝났다. 인도의 경우 소규모 농가 생산이 지배적이라 원료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1850년대까지 제당업은 큰 손실을 입어 투자는 자본이 덜 들고 선진 기술이 필요 없는 인디고 생산으로 옮겨갔다. 모리셔스 제당업은 1870년대부터 정채기에 들어가, 수출 시장은 인도로 한정되었다. 태국에서는 근대적 제당업의 맥이 1870년대에 끊겼다. 말레이 반도의 설탕 생산은 저렴한 자바 수입 당에 밀려 1900년을 전후해 사라졌다. 필리핀은 증기기관은 도입했지만 진공팬까지 장착한 설비는 거의 없어 기계화 정도가 높지 않았다. 남중국과 대만에서는 자본의 부족이 기계화를 저해한 핵심 원인이었다.⁰²¹ 일본에서는 1870년대, 1880년대에 메이지 정부와 민간 자본이 이와테현(岩手縣), 홋카이도(北海島)에 근대적 제당공장을 건설했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했다.⁰²²

예외는 있었다. 자바는 근대적 제당업을 정착시켜 카리브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메이저 원료당 생산지로 성장했다. 쿠바 제당업은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과 최신 기술과 과학이 적용된 첨단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유형의 제당업 건설은 19세기 아시아에서 자바가 유일했다. 식민지 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바는 예부터 재래 함밀당 산지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 네덜란드 자바정청은 자바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 상인들에게 바타비아 주위에 플랜테이션을 조성하도록 독려하고, 노동력은 화교 노동자를 썼다. 자바 역시 크게 보면 중국 설탕 생산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⁰²³

자바당은 처음부터 수출용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바타비아의 중국 정크선이 수송했다. 중국에서는 본토 남중국의 설탕보다 맛이 좋다고 환영받았다. 18세기 자바 수출 지역에는 중국 외에 인도, 페르시아만, 드물지만 유럽도 가끔 포함되었다. 근대적 제당 산업화가 기획되기 전 자바의 설탕 생산량은 추계이기는 하나 7천 톤 미만(1820년대)으로, 이 정도 규모는 국제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큰 것은 아니다.⁰²⁴

그런데 19세기 초반 과학기술과 기계화에 따른 설탕혁명을 보고, 자바의 네덜란드 식민지 당국은 일련의 제당업 발전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자바는 19세기 말까지 세계 제2위의 조당 생산 지역이자 세계적 기술 선도 지역으로 거듭났다.⁰²⁵ 1830년 이후 농민들에게 사탕수수를 의무적으로 재배하게 하는 '강제재배 제도'(1830~1870)가 실시되어 플랜테이션이 조성되었고,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1870년에 민간 자본의 제당업 투자를 허락하는 '자유주의' 통치로 전환한 뒤 네덜란드 자본과 화교 자본이 대거 제당업에 참여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 1830년대부터 매년 7천 톤 이상 수출되더니, 1851년에는 수출량이 10만 톤으로, 1870년대 초에는 다시 20만 톤으로 배증했다. 1885년까지 자바 수출은 다시 40만 톤으로 늘었다. (자가 소비되는 인도 다르당과 중국 적당을 제외한) 세계 설탕 생산량은 어림값이지만 18세기 말 26만 3천 톤, 1840년 65만 4천 톤, 1850년 100만 톤, 1880년대 중반 400만 톤으로 추계된다. 그에 따르면 1880년대 중반에 자바는 이미 세계 설탕 생산의 약 10%, 사탕무당을 제외한 자당만 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20세기 초까지 자바 설탕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총 수출액 중 30%를 차지했으며, 세계 설탕 수출량에서 아시아 1위, (쿠바에 이어) 세계 2위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⁰²⁶

자바의 설탕 생산이 화교 자본 위주의 재래 함밀당에서 계획경제하의

기계식 원료당 생산으로 전환되고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 일어남에 따라, 수출 시장도 극적으로 변화했다. 1820년대까지 아시아 위주였던 시장은 산업화 초기인 19세기 중반부터 정제당 산업이 몰려 있는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삼게 되었고, 1880년대 전까지 주로 암스테르담 및 런던의 정제당공장에 원료당을 공급하였다.

이처럼 자바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근대적 제당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재래당 산업이 갑자기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설당이 증기선의 도입과 교통혁명에 따라 세계시장에 편입되면서 재래 함밀당의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다. 1850년 태국의 최대 수출품이 함밀당이었으며, 인도는 1860년대까지 유럽에 설탕 수출을 계속했다. 중국 남부 광동성(廣東省) 조주(潮州)와 대만은 1870년대부터 1880년대 피크를 거쳐 1890년까지 재래 함밀당을 유럽,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수출했다.⁰²⁷

하지만 1880~90년대에 이르러 아시아 제당시장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재래 함밀당시장을 침식할 근대식 공장에서 생산된 분밀당, 즉 조당과 정제당의 본격적 침투였다. 그 흐름 속에 홍콩에서 정제당 투자가 본격화된다.

2) 홍콩 제당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설탕 시장

1880년대 이후 아시아 설탕 시장의 키워드는 아시아 역내에서의 조당-정제당 일관 생산의 확립, 유럽 사탕무당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가져온 분밀당 시장의 확대였다. 우선 아시아 역내에서는 1차 가공된 조당과, 그 조당을 원료당으로 재차 가공한 정제당이 둘 다 직접 소비시장인 아시아 내부에서 상품화되었다. 1880년대에는 자바의 설탕 생산이 크게 늘었다. 자바에서 생산된 조당은 상당 부분 원료당으로 정제당 생산 지역에 수출되었으나, 조당

일부와 백당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되는 상품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량 수출되었다. 1880년대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정제당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그 원천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보호무역주의 아래서 싼 가격으로 무장한 유럽의 과잉 사탕무당이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홍콩 제당업의 흥기로 아시아 내에서 자바 원당-홍콩 정제당 라인이 구축되어 지역 내 정제당 공급이 확대된 것이었다.

1880년대 이후 급격한 시장 재편의 근원을 캐자면 1870년대의 위기, 또 그 위기를 만든 19세기 중반의 엄청난 세계경제 호황이 있었다. 19세기 중반의 운수혁명으로 농산물 수출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지의 농업은 국제무역의 직접적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⁰²⁸ 미국의 유럽으로의 식량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1840년에서 1870년대까지 21배가 늘었다), 예전에 밀을 생산하던 독일과 동유럽 지역은 밀을 포기하고 대거 사탕무 재배로 작종을 전환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헝가리 등 신대륙의 자당 수입국들은 수입대체를 위해 1850년대부터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다. 여기에 사탕무 재배까지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탕무당 생산 과잉으로 유럽 설탕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정제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설탕을 변질 없이 거의 무한하게 운반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원거리로 과잉당을 덤핑 수출하자 세계 설탕 가격은 국제적으로 폭락했다.⁰²⁹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1873~1896년 사이 세계는 불경기였는데, 그 시작점인 1870년대의 불경기가 정치 경제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보았다.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1870년대 중반부터 공업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생산과 교역에 적극 개입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초중반 내내 농업의 상품화와 생산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농업 상품

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했다. 필연적으로 경쟁 격화, 상품 가격과 이윤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강력한 보호관세를 실시하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카르텔과 양국 간 무역협상과 바터무역을 추진하게 된다.⁹³⁰

설탕은 대표적 사례였다. 1850~1904년 사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정부 수출보조금을 없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6천만 톤 이상의 사탕무당을 팔았다. 프랑스는 고율의 수입관세로 국내 제당업자들을 보호했다. 독일은 미국과 사탕무당과 식량을 교환하는 양국 간 바터 무역협상을 수십 년 약정으로 성공시켰다. 자유시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던 대만 재래당의 수출 역시 이러한 보호주의로 시장을 상실했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 대만 재래 함밀당은 캘리포니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원료당으로 수출되었다. 187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한 19.5톤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1879년에는 8,350톤, 1880년에는 6만 3,250톤까지 늘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한 오스트레일리아 제당회사(Colonial Sugar Refinery Company Limited)가 피지섬에 독점적으로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강력한 보호관세를 실시하면서 수출은 끊겼다. 캘리포니아 시장 역시 미국에서 사탕무당 공업이 발전하자 보호관세법이 통과되면서 상실했다.⁹³¹

이제 세계 설탕 시장은 보호관세에 의해 보호받는 시장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자유시장에서 피 말리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유시장이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정책적으로 보호관세를 실시하지 않았던 인도 시장, 관세자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 대체형 산업화나 보호관세를 실시할 수 없었던 중국, 일본, 조선, 태국 등 불평등조약하의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1880년대에 세계시장에 얼마 남지 않은 자유시장인 아시아 시장에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의 과잉 사탕무당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

했던 것이다.

한편 1870년대 이래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또 다른 새로운 대응이 홍콩정제당의 성립이다. 유럽, 인도, 중국을 잇는 차, 비단, 아편의 삼각국제 무역으로 성장한 구미 상사자본들은 중국 개항 이후 성장을 거듭했으나 1870년대 내내 이어진 세계불황으로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다.⁰³² 중국에서 양행(洋行)으로 불린 이 회사들 중 일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교통, 운수, 산업자본으로 경영을 다각화하면서 자기 변신에 성공하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스코틀랜드 자본의 자딘 메디슨사(Jardine, Matheson & Co., 중국명은 怡和洋行)와 스와이어사의 중국 현지 회사인 버터필드 앤 스와이어사(Butterfield & Swire Co. 중국명은 太古洋行)이다.⁰³³ 두 회사는 원래 무역업자였으나, 1870년대 초반 기선을 사들여 거의 동시에 중국 연안과 아시아 지역의 해운업에 뛰어든다. 1880년을 전후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정제당공장을 지어 제당업을 시작했다.

중국 제당업사 연구로 유명한 미줌다(Sucheta Mazumdar)에 따르면, 1870년대 유럽의 사탕무 수확이 병해로 크게 줄어들면서 싼 중국 재래 함밀당이 유럽에 수출되어 비싸게 팔렸고, 이때 수출업자였던 양행들이 제당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⁰³⁴ 하지만 두 회사가 정제당 사업을 시작한 데는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과 통신의 발전으로 시장 정보가 단 시간에 공개되면서 양행들은 무역업으로는 예전과 같은 투기적 시장 차익을 노릴 수 없었다.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했다. 그런데 제당업이 전망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자바, 필리핀의 원료당 생산이 궤도에 올라 정제당에 핵심적인 원당 공급이 해결될 수 있었다. 또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정제당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하여 시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일본, 조선을 잇는 동아시아 개항장과 중국 내륙 수운의

증기선 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의 운반과 유통이 용이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는 아직 정제당이 생산되지 않고 있어, 일단 정제당을 역내에서 생산하면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홍콩 제당업은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생산하여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동아시아 설탕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딘 메디슨사는 1869년에 유명 재래당 산지인 광동성 광주 부근 황포에 제당창(황포정련장黃埔精煉廠)을 설립하려 했으나, 현지의 재래제당업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다가 1868년에 화희양행(華熙洋行, Wahee & Co.)이 홍콩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제당창인 중화화차공사(中華火車公司)를 넘겨받아 1872년부터 직접 관리하다가, 1878년에 정식으로 인수하여 초기 자본 60만 홍콩달러로 중화화차당국(中華火車糖局, the China Sugar Refining Co., 일일 생산량 238톤)을 설립했다.⁰³⁵ 이후 광동성 산두(汕頭) 지역에 분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1880년 6월 생산 개시), 노동력 부족과 원료 조달 문제 등으로 1886년에 문을 닫았고, 정제당 생산은 전적으로 홍콩에서 이뤄지게 되었다.⁰³⁶ 중국에서는 이 화당창(怡和糖廠), 이화당(怡和糖)으로 널리 불렸다.

버티필드 앤 스와이어사의 제당창 태고당방(太古糖房, 정식 명칭은 太古車糖股份有限公司, the Taikoo Sugar Refinery Co., Ltd. 일일 생산량 714톤)은 3년 뒤인 1881년에 초기 자본 18만 8천 파운드로 설립되어 1884년부터 풀가동 생산에 들어갔다.⁰³⁷ 태고당창(太古糖廠), 태고당(太古糖)으로 불렸다. 이화당과 태고당은 모회사가 수출입무역, 기선항운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태고당은 후발주자였으나 “수에즈운하 동쪽에서는 최대의 제당공장”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영국산 최신식 설비와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업 첫 2년간의 적자를 딛고 곧 흑자로 돌아섰다. 풀가동에 들어간 지 3년째인 1887년에는 당시 이화양행의 홍콩 중화당국과 필리핀 루손에 세운 제당창(Luzon Sugar

Refinery Company)이 자본 합산 43만 파운드로 20만 홍콩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데 비해서, 태고당방은 자본금 19만 8천 파운드로 45만 홍콩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다.⁰³⁸ 두 회사 모두 초기 주력 시장은 다름 아닌 중국과 일본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 상인들은 1870년대 즈음에는 광주에서 홍콩과 상해로 본점을 옮기는 현상이 확실해졌다.⁰³⁹ 광주에서와 달리 홍콩과 상해에서는 근대적 기업 투자가 방해 없이 활발히 이뤄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업자본주의가 싹텄다. 동시기 메이지 일본에서도 철도, 면업, 제사를 중심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당업만큼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 이유는 불평등조약 아래서 일본은 관세주권이 없어 국내 산업 보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원료당을 자바와 필리핀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고, 영국의 선진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이용해 가격과 질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이른바 보호관세가 없는 '자유시장'인 일본과 중국을 공략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탕수수 재배와 조당 생산을 모색하던 이화당과 달리, 태고당은 처음부터 자바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홍콩에서 정제하는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 태고당방은 대부분의 원료를 자바의 설탕수출업자인 맥클레인 왓슨상회(Maclaine Watson & Co.)로부터 조달받았다. 이 회사는 자바의 상위 10개 설탕 수출업자 중에 유일한 영국 자본 회사이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자바 수출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던 회사이다.⁰⁴⁰

아시아에서 대부분 지역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으므로, 이들 지역 제당업의 운명은 식민 당국의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도는 매년 30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산당국으로 함밀당 수출국이었으나⁰⁴¹ 본국 영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설탕에 대한 보호관세를 두지 않아 유럽의 사탕무당과 모리셔스와 자바의 조당 수입이 크게 늘어 1880년대

에는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1880년대 중반까지 수출이 좀 더 많았으나, 1886년과 1890년대 사이는 평균 수입이 약 9만 3천 톤, 수출이 약 5만 3,700톤으로 수입이 훨씬 많아졌다.⁰⁴² 하지만 적은 수입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출을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입맛과 기호에 따라 재래당인 다르당 시장이 확고하여 재래 함밀당과 수입 분밀당 시장은 상호 대체성이 낮아 분할되었다. 인도의 재래 제당업은 수출이 끊겨도 내수시장 덕분에 자급력을 유지하였다.

한편 말라야에는 화교들의 재래 함밀당 생산과 근대식 제당창이 한동안 공존했었다. 하지만 1890년대 영국 식민 당국이 말라야의 쌀 수입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쌀 재배를 권장하고 쌀 자바당을 사도록 하자 제당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영국 본국은 서인도제도과 모리셔스처럼 주요한 산당지를 이미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고, 유럽 사탕무당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정책을 취했으므로 굳이 말라야 당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 식민지에 대해 사탕수수 재배를 유도하고 쌀 재배를 억제했으나 농민은 두 작물 사이를 갈아타며 최대이익을 꾀하던 ‘미당상극(米糖相克)’은 말라야에서 역전되어 나타났다.⁰⁴³ 말라야는 설탕 생산은 줄고, 커피, 고무, 코코넛으로 상품 작물 주력이 바뀌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즉 베트남에서도 식민지 당국의 정책적 영향을 받아 작종이 개편되었다. 사탕무당 주요 산당국인 프랑스는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업에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자바당을 수입하는 대신 베트남에서는 쌀, 옥수수, 고무 재배를 장려했다.⁰⁴⁴ 필리핀 제당업은 스페인 치하에서는 규모 있는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1898년 미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는 꾸준히 개선되지만, 미국 본국의 사탕무당 생산업자들의 로비(이른바 the sugar-beet lobby)가 필리핀의 근대적 제당업을 지연시켰다.⁰⁴⁵

19세기 말까지 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한 곳은 태국(시암)과 한, 중, 일 등

아시아 3국이다.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것은 면했으니, 불평등조약아래서 관세지주권을 누리지 못했다. 태국의 협정관세율은 3%, 동아시아의 협정관세율은 5%로 1880년대부터 쏟아지는 저렴한 수입 설탕, 즉 자바 조당과 백당, 유럽 정제당(사탕무당), 홍콩 정제당(자당)에 시장을 잠식당했다. 태국의 제당업은 19세기 중반부터 퇴조를 보였는데, 1880년대 중엽이 되면 자바당의 수입 증가로 설탕 수입국으로 바뀐다.⁰⁴⁶

중국은 1880년대까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여 산당 대국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1890년대에 들어와 홍콩 정제당 수입이 급증하면서, 1893년을 경계로 설탕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은 인도처럼 입맛과 용도의 차이로 조당, 정제당 등 분밀당 수입의 증가가 함밀당을 생산하는 국내 제당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함밀당과 분밀당 시장의 통합과 대체가 진전되면서 1894년에는 5만 4천여 톤을 수입하더니, 20세기에 진입하자 10만 톤을 넘고, 1920년대에는 80만 톤을 넘어서 아시아 최대의 설탕 수입시장이 되었다.⁰⁴⁷

산당국의 하나였던 일본은 개항 직후 남중국, 대만, 벵골의 재래 함밀당이 크게 늘어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1868년에 일본의 국내 설탕 생산량은 3만 톤, 수입은 약 1.4만 톤이었다. 1870년대에는 연간 3.5만 톤 내외로 수입량은 늘었지만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런데 1880년대부터 일본 경제의 발전으로 1인당 설탕 소비가 늘어나 시장이 커지고 홍콩 정제당과 유럽 사탕무당 수입이 급증하였다. 1885년에는 국내 생산은 4만 톤, 수입이 6.2만 톤으로 수입이 크게 앞섰다. 1890년대에 들어오면 설탕 수입은 더욱 늘었다. 1894년 설탕 수입량은 13만 톤에 달했다. 그중 7만 톤이 홍콩 정제당이었다.⁰⁴⁸

세기 전환기(1898~1902년) 아시아 각국의 설탕 수입이 수입 총액에서 점차

는 비중을 보면, 일본 9.2%(3위), 인도 6.4%(2위), 중국 5.2%(3위)로 모두 최상위의 수입 상품이 되었다.⁰⁴⁹ 동아시아 설탕 시장에서는 조당, 백당을 생산하는 자바, 자바 조당을 정제해서 파는 홍콩, 이 둘을 소비하는 중국, 일본의 삼각 구조가 구축되었다.⁰⁵⁰ 유럽 사탕무당의 수입은 유럽 내의 수급 사정이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풀렸고, 주로는 유럽 내수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반면 자바당과 홍콩당은 오로지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전적으로 국제시장 수출을 위해 생산되었다. 마침 세계적으로도 남아 있는 자유시장이 아시아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래 암스테르담, 런던까지 수출하던 자바당도 역내 홍콩에서 대규모 정제당공장이 연이어 설립되자 원료당은 주로 홍콩 정제당으로 공급하고, 인도와 동남아 각지에는 백당을 소비재로 수출하여, 1890년대 이후 자바당의 시장은 거의 아시아로 한정되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처럼 자바-홍콩의 세계적 수준의 근대적 제당 생산라인이 구축되면서, 재래당 산업이 건재한 인도와 달리 중국과 일본의 설탕 시장에서는 재래 함밀당을 누르고 정제당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거꾸로 보자면, 자바-홍콩 제당 자본의 중·일 두 시장에 대한 의존도 역시 커진 셈이었다.⁰⁵¹ 18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설탕 시장은 국내 재래당 생산이 내수를 채우고 있었고, 1인당 설탕 소비 수준이 낮아 설탕 수입 총량은 일본이 더욱 컸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는 홍콩당이 유럽 사탕무당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던 데 반해, 중국 정제당시장은 태고당이 시장의 3분의 2, 이화당이 3분의 1로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일본 정제당시장은 1880년대만 해도 수입 정제당의 90%를 홍콩당이 공급했으나, 1890년대 들어와서는 유럽 사탕무당의 시장 진출로 점유율은 엇치락뒤치락했다.⁰⁵²

1894년에 와서도 이화, 태고 두 홍콩당은 요코하마 설탕 수요의 54%, 고

배 설탕 수요의 40%를 공급하여,⁰⁵³ 일본 시장에서 홍콩당의 점유율은 1890년대 중반까지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태고당방의 영업이익은 1880년대에 2~5만 파운드 수준이었는데, 1898년에는 14만 6,294 파운드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⁰⁵⁴

1900년은 일본의 홍콩당 수입이 정점에 달한 해였다. 이 해의 정제당 수입은 홍콩이 65,839톤, 오스트리아-헝가리 25,830톤, 독일 24,258톤으로 전체 수입량도 증가했고 홍콩당이 사탕무당을 눌렀다. 1901년에도 홍콩당 60,088톤으로 수입량은 다소 줄었지만, 오스트리아와 독일 사탕무당은 각각 28,435톤, 65,368톤을 기록해 정제당 수입은 재차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런데 1902년에는 홍콩당 수입이 11,600톤으로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더니, 1905년에는 1,187톤으로 수입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⁰⁵⁵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요인, 즉 1895년 식민지 대만의 획득과 1899년 일본의 관세자주권 회복에 기인한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 산당지인 대만을 영유한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처럼 식민지 대만에서 사탕수수를 경작하고 조당을 생산하여 일본 본토 정제당 산업에 원당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자금력을 갖춘다고 해도 싼 수입당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호관세로 정책적 보육을 해야만 하는데, 일본 정부는 1899년 영국과 조약 개정에 성공하여 부분적으로 관세자주권을 회복하여 15번 이하 원료당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때는 백당, 정제당이 관세자주권 행사 대상 밖이었으므로, 수입 정제당은 잠시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902년에 원당 수입세를 재차 올리고, 강력한 보조와 후원으로 일본 정제당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자, 수입정제당은 신속히 시장에서 구축되었다.⁰⁵⁶

이 변화를 아시아 설탕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1899년은 아시아 시

장에서 자바-홍콩에 이어 또 하나의 원당-정제당 생산기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해였다. 그런데 일본이 학습한 모델은 자바-홍콩 모델이 아니었다. 자바는 네덜란드 식민지, 홍콩은 영국 식민지로 두 지역은 모두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마침내 '자유시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아시아 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 열강들이 구축했던 식민지 원료당-본국 정제당 체제를 창출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유럽 사탕무당 생산국들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썼던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기축으로 한 국가 개입형 성장 모델이었다.

일본은 선진 공업국으로 가는 길에서 '외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수입 순위 2~3위이자 소비재로 외화를 유출하기만 하는 설탕은 수입대체의 가장 시급한 대상이었다.⁶⁷ 그 기획은 대만을 영유하여 원당 생산을 확보할 수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관세지주권을 회복해서 막 출발한 국내 제당업을 보호할 수 없었더라면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1900년부터 일본은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모멘텀이 아시아 설탕 시장에 미친 영향은 처음에는 주요 자유시장이었던 일본의 소멸이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유일하게 남은 자유시장인 중국에서 일본당이 강력한 역내 공급자/경쟁자로 등장함으로써 자바-홍콩 제당업 라인을 크게 흔들고 아시아 역내 설탕 시장 전체를 바꾸게 되었다.

2. 일본 제당업의 세력 확대와 자유시장-통제시장의 길항

1) 일본의 제당업 육성과 동아시아 설탕 시장

대만의 원당 생산이 본격화되기 전, 이미 관세지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1900년에 본토 내에서 정제당 생산량 10만 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본정제당(日本精製糖, 도쿄, 1895)과 일본정당(日本精糖, 오사카, 1896) 두 곳의 대형 정제당 회사가 설립되어 원료당을 자바에서 수입하여 정제당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1900년 중국에서는 정제당 시장을 홍콩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1900년에는 세계 원료당 가격이 6년 만에 4분의 1로 폭락하였고, 정제당 가격 역시 크게 떨어졌다. 덕분에 중국처럼 비교적 구매력이 약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정제당 판로가 넓어지고 재래당의 가격 저항력은 떨어졌다.⁰⁵⁸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국책 사업으로 본토 정제당 산업을 지원할 대만 원당 산업 건설에 본격 착수하였다. 1900년 대만총독부의 요청으로 미츠이물산(三井物産)은 대만제당(台灣製糖)을 창립하였고 1901년/1902년 분기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1902년에는 ‘당업 장려 규칙(糖業獎勵規則)’이 대만에서 시행되어 사탕수수의 원활한 공급을 정책 면에서 지원하였다. 동시에 일본 본토에서는 ‘원료당 수입세 환급 제도(輸入原料糖戻稅制度)’를 실시하여 국내 정제당 회사에게 원료당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무관세인 자유무역 지대의 홍콩 제당회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었다.⁰⁵⁹

국제 환경 역시 일본 제당업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었다. 같은 해에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당과 더불어 정제당시장을 분점하고 있었던 유럽 사탕무당이 시장경쟁력을 잃었다. 1902년에 유럽 주요 산당국이 브뤼셀 협약(The Brussels agreement on Sugar)을 체결하여, 설탕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사탕무당은 처음에는 카리브해 수입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 이후에는 과잉 생산량을 수출로 처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출혈을 감내하고 지원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했었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각국 정부는 더 큰 재정 손실

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유럽 각국 정부는 출혈 경쟁을 지양하기로 하고 동시에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었다.⁰⁶⁰

그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 강세였던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사탕무당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시장경쟁력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1880년대 이후 유럽 사탕무당이 점령했던 인도 시장도 브뤼셀 협약 이후 예전처럼 자바와 모리셔스의 백당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브뤼셀 협약국이 아니었으므로, 대만 조당업과 본토 정당업에 각종 재정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국내산 정제당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⁰⁶¹

일본 정부의 제당업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 덕분에 민간 자본의 제당업 투자가 잇따랐다. 1903년에 대만에서는 염수항제당(鹽水港製糖) 회사가 설립되었고, 스즈키상점(鈴木商店)은 북규슈에 다이리 정제당회사(大里製糖所)를 설립하여 제당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 같은 해 미즈이물산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상해와 한구에서 일본 정제당을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려 시도하였다. 일본 정제당 업계의 발전과 함께 아시아 역내의 원료당 공급자인 자바당은 홍콩 외에 일본 수출을 늘려갔다. 1904년 자바당의 생산량은 100만 톤을 돌파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아시아 수출이었다. 대만 원료당 생산이 본격화되자 제당업으로부터 얻는 세금 수익이 늘어나 1905년에 대만은 ‘재정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만 총독부는 ‘제당장 단속 규칙(製糖場取締規則)’을 실시하는 등 보호 육성책을 강화했고, 때마침 러일전쟁(1904~1905) 전후의 기업 발흥 붐이 겹쳐, 연이어 정제당 회사가 신설되었다.⁰⁶² 1905년에는 명치제당(明治製糖, 臺南)을 비롯해, 요코하마정당(横浜精糖), 유아사제당소(湯淺製糖所, 1908년에 神戸精糖(株)으로 개칭)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생산 증대와 러일전쟁 전시 특수에 힘입어 일본정제당은 1905년에 첫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러일전쟁 당시 비상특별세법이 개정되어 사탕소비세가 크게 오

르자 일본 국내 수요가 감소했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던 상황이 작용했다. 1903년에 한차례 중국 수출을 시도했던 미츠이물산은 1905년에 한구(漢口)에서 일본 당 판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1906년에는 닛산양행과 도쿄양행 두 회사가 한구에서 일본 정제당 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다.⁰⁶³

정제당 회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1906년에는 업계의 지도를 크게 바꾼 합병이 이뤄졌다. 선발주자였던 도쿄의 일본정제당과 오사카의 일본정당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합병하여 대일본제당(大日本製糖)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대일본제당은 초기 자본 1,200만 엔, 일일 정제당 생산능력 850톤으로, 당시 아시아 최고라던 태고당방의 일일 생산능력 750톤을 압도했다. 동시에 대일본제당은 대만에 조당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판매용 정제당의 원료당으로 쓰고, 중국 수출용으로는 더 싼 자바당을 원료당으로 수입하여 정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⁰⁶⁴

1907~1910년 사이 중국의 매년 설탕 소비량은 58만 8천 톤(980만 담)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절반은 국내 생산의 재래 함밀당 소비였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 분밀당이 충당했다.⁰⁶⁵ 이 30만 톤에는 정제당, 백당, 조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나, 1920년대 전까지 정제당의 비중은 70%대로 늘어났다. 이 정제당 시장을 두고 홍콩당과 일본당은 1905년 이래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일본 정제당은 진출 첫 해인 1905년과 이듬해 1906년에 각각 1만 톤, 3만 4천 톤을 수출하여 홍콩의 7만 9천 톤, 6만 9천 톤을 크게 위협했다(정제당 수입 총액은 각각 약 9만 톤, 10만 톤이었다). 일본 정제당의 약진에 긴장한 태고당방은 1906년 만주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다. 태고당방을 취급하는 전문 대리점을 소비자가 있는 하위 지역까지 조직하는 ‘만주 시스템(the Manchurian system)’, 훗날의 내지 판매망 시스템(up-country selling system)의

구축이다. 만주에서 시작된 대리점 시스템은 1910년대 초에는 화북에, 중반에는 화중 지역,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당의 영향은 태고당방의 영업 수익에서 잘 나타난다. 태고당방은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중국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1898년에 영업이익 최고치를 갱신하여 14만 6,294 파운드를 기록하고, 1900년에도 12만 8,964 파운드로 호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이 축소되고 의화단 운동의 여파로 화북이 전쟁터가 되면서 1901년에는 2만 7,087파운드로 이윤이 격감하고, 1902년에는 개업 후 가장 참담한 12만 9,903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중국 정제당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1903년, 1904년 모두 12만 4,090파운드, 16만 7,959파운드의 기록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1905년에는 역대 최대인 26만 2,988파운드의 수익을 얻어 주주 배당금이 20%나 되었다. 그런데 일본당의 중국 진출로 1906년과 1907년에는 5만 파운드대로 수익이 확 줄었다. 이후 가격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 등 노력으로 이윤은 점차 회복되어 1910년에는 다시 13만 8,825파운드의 성적을 올리게 된다.

홍콩당과 일본당의 경쟁과 중국 정제당 시장의 확대에 자극을 받아, 중국 내에도 제당공장이 건설되었다. 1909년에는 러시아 국적의 폴란드인이 만주 하얼빈에 아십하제당창(阿什河製糖廠)을 설립했고, 중국 자본의 호란 제당창(呼蘭製糖廠)이 하얼빈 근교의 호란(呼蘭)에 세워져,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사탕무당 생산이 시작되었다. 1910년에는 오키나와 제당회사가 설립되어 아시아 역내에 제당 기지는 계속 늘어났다.⁹⁶⁶

일본 정부는 대만 원당-일본 정제당 라인으로 구축된 일본 제당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대만총독부는 대만 원료당의 가격 인하를 위해 1910년에 183만 엔, 1911년에는 263만 엔을 지급하여, 2년 동안 총 445만 엔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전 1902~09

년의 8년간 보조금 총액이 270만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액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산과 가격의 인위적 조정을 위해 1910년에 일본 정당업 자들로 ‘당업연합회(糖業聯合會)’라는 카르텔 조직을 출범시켰다. ‘산당처분 협정’과 ‘원료당 매매 협정’으로 대만당의 원료당과 판매당의 배당 비율 및 가격을 이 카르텔이 결정했다. 카르텔 운영이 가능했던 것도 역시 일본이 브뤼셀 협약밖에 있었기 때문이었다.⁰⁶⁷

드디어 1910년대에 들어와 정제당과 조당을 포함한 일본 국내 설탕 시장의 자급화가 달성되었다. 1911년에는 염수항제당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당 생산에 성공하여 자바 백당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 면에서 자급도가 커졌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제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관세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⁰⁶⁸ 1911년의 신관세법 ‘설탕관세법(砂糖關稅定率法)’에 따라 1900년 약 10%(9.4~10.2% 분포)였던 정제당 관세는 41.7%로 뛰어올랐고, 원당과 정제당 관세율은 재차 50%와 60%로 올랐다.⁰⁶⁹ 홍콩당을 비롯한 정제당 수입은 자취를 감추었다.

자립은 정제당 시장만이 아니었다. 1900년대까지 일본은 정당업 생산능력에 비해 원료당인 조당 생산능력이 부족했었다. 1908년까지는 대만당의 증산이 완만히 이뤄지고 있어서, 일본 시장에서는 정제당 생산을 위한 원료당 수요뿐만 아니라 소비재로 직접 판매되는 조당 시장에서도 대만당만으로는 부족해서 자바당을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1909년 이후 대만당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먼저 소비시장 판매용의 자바당 수입이 줄어들었다. 1911년과 1912년은 폭풍으로 대만 사탕수수 재배가 큰 타격을 입어 생산이 약 16만 톤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1910년대 대만 조당 생산은 20만 톤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일본 제당업은 국내 정제당 시장을 위한 원료당으로는 더 이상 자바당을 수입할 필요 없이 대만 원당만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제당뿐만 아니라 원당 수급에서도 완전한 수입대체 자급화를 이룬 것이다. 반면 홍콩당은 이때를 기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고 중국 시장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원료당 공급자인 자바당 역시 대만 원당의 성장에 따라 일본 원료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과 나머지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게 되었다.⁰⁷⁰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 시장에서도 홍콩당의 수성은 쉽지 않았다. 홍콩당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제당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는 저렴한 자바당을 원료당으로 썼기 때문이다. 1910년에 대일본제당은 19,800톤(33만 닢)의 정제당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 양은 대일본제당의 연간 총생산량의 약 31%, 그해 중국의 일본 정제당의 총수입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양이었다.⁰⁷¹ 중국 최대의 설탕 시장은 유통의 중심지인 상해였다. 판매 전략을 점차 직접 판매 위주로 바꾼 태고당방과 달리, 미츠이물산을 제외하면 일본 정제당 회사들은 상해의 설탕 도매상인 당행(糖行)에게 판매를 의뢰했기 때문에, 1909년부터는 상해 설탕 도매시장의 거래 표준가격이 태고당 가격에서 대일본제당(주)의 설탕 가격(N₁₁가격)으로 바뀌었다. 1910년에 상해에서 활동하던 11개의 외국인 수입회사 중에 3개는 영국(태고, 이화 외 1), 5개는 일본(미츠이물산, 스즈키양행, 아베양행, 유아사양행)이었고, 중국인 수입회사는 22개로 대부분 광동성과 복건성 출신으로 자바당, 중국당, 필리핀당을 취급했다. 1910~1912년 중국 설탕 수입시장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설탕의 발송지를 살펴보면 28%가 홍콩, 20%는 일본, 44%는 자바, 8%는 필리핀이었다.⁰⁷² 최초 선적지를 발송지와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당시 중국 정백당 수입시장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정제당은 홍콩과 일본, 백당과 조당은 자바, 필리핀으로, 정제당과 백당, 조당이 수입 설탕 시장의 절반씩을 분점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설탕 무역 전체를 보면 1902년에는 무역 총량이 약 39.7만 톤으로 일본제국 내

의 무역량은 거의 없고 중국, 일본으로의 수입이 거의 전부였으나 1913년이 되면 전체 무역량은 63.8만 톤으로 크게 늘었는데, 동아시아 간 무역이 53.3만 톤, 일본제국 내의 무역이 10.5만 톤이었다. 10년 만에 동아시아 설탕 시장은 전체적으로 1.5배 커지고, 일본제국 내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⁰⁷³

2)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설탕 시장

동아시아 제당업은 일본 제당업의 등장과 중국 정제당 시장의 확대로 규모가 커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생산 과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과당경쟁에 따른 도태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동아시아 제당업은 일거에 동반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다. 세계대전의 발발로 사탕무당 생산 지역인 유럽이 전화에 휩싸이면서 설탕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했다. 나머지 산당 지역의 수익률은 크게 높아졌다. 이미 공급과잉이 진행 중이던 일본 제당업계와 중국 시장을 두고 경쟁하던 홍콩 제당업계는 한숨 놀리며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 카리브해의 쿠바 등 사탕수수 재배 지역과 원료당 생산 지역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세계 각 지역에서 수익률 높은 제당업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1915년 명치제당이 토바타(戸畑)에 공장을 추가 건설했고, 대만제당이 매수한 고베정당이 제2공장을 고베에 추가로 지었다. 일본 본토뿐 아니라 일본제국 전역에서 추가 투자가 나타났다. 1916년에는 일본 남만주철도회사가 만주 봉천(奉天)에 남만주제당(南滿州製糖)을 설립하여 사탕무당 생산을 시작했다. 1917년에는 제당업 건설에 소극적이던 조선 총독부를 설득해 대일본제당이 조선제당(朝鮮製糖)을 설립하였다. 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19세기 후반에 사탕무당 생산에 도전해 한 차례 실패했던 홋카이도에서도 재차 북해도제당(北海道製糖, 1919), 일본침채제당(日本甜菜製糖, 1920,

1923년 명치제당에 흡수됨)이 연달아 설립되었다.⁰⁷⁴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태고당은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에서 세력을 만회하는 데 힘을 기울였는데, 실제 태고당의 전국 대리점(1924년 피크 시기 전국 308개) 중 53%가 바로 대전 기간인 1915년에서 1918년까지 4년 동안 개설된 곳들이다.⁰⁷⁵ 하지만 영국 정부는 전략물자 공급을 위해서 홍콩에 전시특별조치를 실시해 홍콩 설탕의 수출을 제한해버렸다. 태고당이 중국 내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다. 그 때문에 전전보다 오히려 중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다.⁰⁷⁶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독일 사탕무당과 전시 규제를 당한 홍콩당의 공백을 채운 것은 일본 정제당이었다. 예전부터 태고 가 강제였던 천진 설탕 시장에서 일본당은 수입당의 약 25%를 차지하며 시장을 확대했고, 원래 강제였던 상해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80%까지 높여서 20%에 머문 홍콩당을 크게 눌렀다.

그런데 1918년 전쟁이 끝나자 공급 부족으로 세계 설탕 가격이 폭등했다. 태고당 가격은 1담(60kg)에 8~10원이던 것이 일약 80원으로 거의 10배가 뛰었다. 유럽 각국은 전후 회복을 위해 설탕 수입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⁰⁷⁷ 전후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1919년 태고당방은 수익이 크게 늘어 19만 파운드를 재투자하고, 10만 2,985파운드의 수익으로는 전례 없는 30%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 초반은 태고당방의 황금 시절이었다. 순수익은 계속 늘어 1922년은 37만 4,844파운드, 1923년은 39만 300파운드, 1924년은 21만 9,500파운드의 대기록을 세웠다. 장밋빛 전망에 과감한 재투자가 이뤄졌다. 1911년부터 1918년까지 8년간 재투자는 총 47만 파운드였는데, 1919년부터 1925년까지 7년간 재투자 총액은 무려 343만 6,029파운드에 달했다.⁰⁷⁸

한편 1차 대전 시기 정제당의 원료가 되는 조당 생산 지역에서도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가 이뤄졌다. 주의할 것은 아시아의 두 메이저 생산기

지인 자바와 대만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대만에서는 이 호기를 십분 이용해 생산량을 늘려 1910/1911년 20만 톤이던 생산량이 1916/17년 약 40만 톤으로 증대했다. 대만 원당을 정제한 일본 정당은 높은 값으로 팔려 나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바의 산당량은 1917년 180만 톤이었는데, 유럽 전쟁으로 인한 선박 부족과 유럽 상인들의 철수로 오히려 산지에서 설탕 가격이 폭락했다. 선박 부족과 재고 증가로 자바의 화상 중에는 파산이 속출했다. 자바당 거래를 장악하던 유럽 상인과 화상이 퇴조한 사이에 대두한 것이 일본 상인들이었다. 선박업이 크게 발전하고 항운을 보유한 일본 상사들이 자바당 구매에 나섰다. 이 자바당을 제3국에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 히라이 켄스케의 표현대로 일본 상인들은 자바당 거래와 대만당 거래를 동시에 증가시켜서, 자바당은 정제해서 아시아 시장에 팔고, 대만당은 정제해서 일본 국내 시장에 파는 식으로 이중의 이윤을 확보했던 것이다.⁹⁷⁹

전후 일본 상인들은 자바당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자바의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전환 덕택이었다. 1918년 자바당국은 설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바당 독점 판매기관(트러스트 기구)인 VJSP(Vereenigingde Java Suiker Producenten)를 설립하여,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각국 상인들이 자바당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자유화 조치로 그동안 자바당국이 공인한 유럽 상인과 화상에게서 자바당을 구입해야 했던 일본 회사는 직접 현지에서 자바당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상인은 곧 유럽 상인과 화상을 누르고 최대의 매입자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자바당의 절반 이상을 일본 회사가 구입하여 일본과 중국 시장에 팔았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자바당을 원료당이나 소비시장 판매용이 아니라 전매(轉賣)와 투기용으로 구입하기 시작했다.⁹⁸⁰

전쟁이 끝났지만, 192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설탕 가격이 강세를 보인

메다 가격 등락이 심해서 투기의 유혹이 컸다. 도쿄 시장에서 분밀당 1담 (=60kg)의 도매가격은 1916년, 1917년에 18엔 정도였으나, 1920년에는 33엔 이상으로 기록적으로 올랐고, 이후에 가격이 정상화되었으나 1921~1924년까지 대체로 20~23엔 사이의 가격을 유지했다. 1922년만은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이 하락하고 제당회사와 무역상의 투기적 자바당 수입이 늘어 공급과잉이 되면서 도쿄 도매가격도 전년의 22엔에서 19.1엔까지 폭락했지만, 이듬해인 1923년에 23.8엔으로 대거 반등에 성공해 결국 투기자본은 큰 이익을 얻었다.⁰⁸¹ 제당업의 고수익은 생산설비의 추가 확대를 불렀다. 1922년에는 일본 식민지인 남양군도에 남양흥발(南洋興發)이 설립되었고, 만주에서는 남만주제당(주)이 철령(鉄嶺)에 두 번째 공장을 건설했다.⁰⁸²

생산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강화되었다. 일본 면업자본의 현지 직접 투자(在華紡)처럼 일본 제당업은 중국 직접 투자를 모색했다. 1924년 명치제당은 중국 최대의 설탕 시장인 상해에 일일 산당능력 100톤의 명화당창(明華糖廠)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자바당을 수입해서 정제하는 방식으로 1925~1930년까지 연평균 3만 5,160톤(586,000담)을 생산했는데, 상해로 수입되는 설탕 총량의 7~15%를 점하는 상당한 수준이었다.⁰⁸³ 일본당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 들어와 자바 백당의 중국 진출 역시 활발해졌다. 기존 상해에는 복건과 광둥 출신의 자바 화상 자본이 직접 당행을 열어 자바 백당을 수입했었는데, 1924년 자바 백당 수입을 중개하는 유럽 무역상까지 상해에 다수 진출하였다.⁰⁸⁴

이러한 도전에 대한 홍콩당의 대응은 이화당과 태고당이 달랐다. 두 회사 모두 1920년대 초의 설탕 가격 상승과 시장 확대로 중국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태고당은 향후 중국 정제당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선도적 투자에 나

졌다. 대체로 정제당 수익은 원료당을 수입해서 가공 판매하므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생산을 대규모화하여 박리다매를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이에 태고당은 100만 파운드를 넘는 거금을 투자하여 최신 설비를 들여와 홍콩 공장을 완전히 새로 지었다.⁰⁸⁵ 이 리뉴얼로 1925년 홍콩의 태고당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공장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태고당에 밀리고 있었던 이화당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1925년은 태고당에게 치명적인 한 해가 되었다. 1925년 일본 설탕 가격이 폭락하여 도쿄 도매가격이 1담에 19.6엔으로 떨어지자(전년 21.9엔),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못 올린 일본 회사들은 일본 정제당의 중국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저렴한 자바당을 투기 매입하여 자바당의 중국 판매에 매진하였다. 한편 상해 당행은 백당이 색에서 정백당과 차이가 없다는 걸 이용해 저렴한 자바 백당을 들여와 방앗간에서 잘게 갈아서 정제당으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 자바 백당 수입은 1920년대에 들어와 크게 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미츠이물산 스라바야 지점은 1925년에만 약 3만 톤의 자바 백당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는 그해 중국 백당 총수입량의 10%나 된다.⁰⁸⁶ 1925년 중국의 수입 설탕 시장은 정제당에서는 일본이 15만 톤으로 홍콩 정제당 10만 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훨씬 상회하는 19만 톤의 자바 백당이 수입되었다. 정제당과 백당을 모두 합친 중국의 정백당 수입 시장 규모는 55만 톤이었는데, 정제당 시장은 27만 톤 수준을 유지했으나, 백당 시장은 28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⁰⁸⁷ 자바 백당 판매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일본 무역회사로 갔고, 태고당은 정제당 수입 축소만큼 백당 생산을 크게 늘려 시장 변화에 대응했다. 따라서 경쟁은 치열했지만 태고당에게 치명타는 아니었다.

오히려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1925년 5월에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상해 조계의 영국 경찰이 발포하여 다수가 사상한 5·30참안(慘案)이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 전역에 반영(反英) 민족주의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여파로 6월 23일 광주(廣州)의 사기(沙基) 조계지에서 재차 시위대와 영국 군경 간에 충돌이 일어나 발포로 50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기참안(沙基慘案)으로 홍콩과 광주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나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홍콩에서 철수했다. 홍콩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省港大罷工). 홍콩, 광주 대파업은 1925년 6월부터 1926년 10월까지 1년 넘게 지속되어, 홍콩 산업의 생산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전국적으로 홍콩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양자강 유역이 특히 치열했다. 홍콩 설탕은 가장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은 뚝 떨어지고, 설탕을 운반하는 태고운선과 이화운선이 운행을 중단하여 수운 물류가 막혔다. 곳곳에서 지점과 창고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1926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태고당방은 장사, 중경, 의창, 남경 사무소를 철수해야 했다. 중화당국, 즉 이화당창은 1925년 15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1928년 5월 폐업하여 61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⁰⁸⁸

동시에 민족주의 정서의 고조로 중국 상인들의 단결력이 올라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도매상의 발언권이 커졌다. 청 말 결성된 상해당업공회(點春堂糖業公所)는 설탕교역 도매상(糖行)을 망라하는 기관이지만 협의체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1925년에 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회원들에게 당업공회에서 결의한 교역 조건을 지키도록 권위를 강화한 것이다. 이후 상해 설탕 거래의 교역 조건은 상해당업공회가 결정하게 되었다. 당행이 사실상 상해 시장의 설탕 가격결정권을 확보한 것이다. 1926년부터 일본당을 대신해 상해 당행 거래의 기준 가격인 ‘획반가격(劃盤價格)’이 상해 설탕 가격의 표준이 되었다.⁰⁸⁹

홍콩당은 1899년 일본의 관세지주권 확보로 일본 시장에서는 밀려났지만, 중국 정제당의 시장 확대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정제당 공급자로 등장한 일본 정제당과의 경쟁이 가열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직후의 설탕 가격 급등이라는 우호적 환경으로 시장을 분점하면서 홍콩당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5년 5·30운동으로 시작된 중국 민족주의 정서의 고조와 반영(反英) 정서는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비록 중국이 관세지주권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홍콩당의 시장 점유를 견제한 것이다.⁹⁹⁰ 1925년을 전환점으로 홍콩, 광주 파업으로 세력을 불린 광동국민정부와 국민당은 결국 1926년 북벌을 시작하여 중국을 재통일했다. 그리고 1928년 12월 새로운 중국 정부인 남경국민정부는 마침내 1899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지주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제 홍콩당의 유일한 ‘자유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이 국가개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 역시 일본이 걸어갔던 길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을 기획하게 된다.

맺음말

19세기 초 세계적으로 기계화된 근대 제당업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산당 지역이었던 아시아 지역은 생산과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1890년대까지는 세계적 원당 산지로 자바가 떠오르고, 이를 홍콩 정제당 회사가 가공해 관세지주권이 없는 ‘자유시장(open market)’인 중국과 일본에 파는 구조가 성립되었다. 아시아 시장의 자바당과 홍콩당은 서구 제국의 식민지와 본국

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지역 시장을 겨냥한 국제적 협업 구조로 아시아 설탕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 점이야말로 동아시아 근대 설탕 시장의 특색일 것이다. 또한 주요 축을 담당하는 홍콩 정제당 자본은 이화양행과 태고양행으로, 영국 자본이나 동아시아에 이주하여 토착화하며 성장한 대표적 트랜스내셔널 자본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대만을 영유하면서 서구 모델의 대만 원당-일본 정제당의 수직적 구조를 구축하자, 홍콩과 자바 제당자본의 성장 토대가 되었던 자유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자유시장이었던 일본 시장은 경제적 보호주의에 의해 사라졌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홍콩당은 중국 시장에서는 국가 보조금과 정책으로 성장한 일본당과 불공정경쟁을 해야 했다. 1925년을 계기로 중국의 민족주의가 분출하면서 홍콩당은 중국 시장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홍콩 태고당방은 최신식의 새 공장이 개장한 1925년에 2825파운드라는 참담한 수익을 올렸다. 1923년 태고당방은 약 40만 파운드의 순수익에 78만 파운드의 재투자할 수 있었으나, 1925년부터 1935년까지 11년 중에 7년은 순수익이 1만 파운드 이하였고, 가장 나았던 1932년과 1933년의 순수익이 3만 파운드 정도였다. 1930년대는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시장 위축과 재고 과잉으로 인한 덩핑으로 세계 제당업체가 긴 침체기에 들어갔었다.⁹¹ 중국 시장에서는 재고를 처분하려는 자바당과 쿠바당의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었다. 하지만 불경기로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정제당과 백당 시장 자체도 축소되었다. 1929년 중국이 관세자주권을 확보하여 '자유시장'에서 이탈하자, 100만 톤으로 늘어난 대만 조당 생산 처분에 고심하던 일본은 만주사변과 화북 침략으로 북중국에 독점 시장을 블록화하고, 조직적 밀무역으로 중국의 관세장벽을 무력화했다. 1933년부터 중국 광동성과 남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근대적 제당업 건설이 시작되어 수입대체 공업화가 진전되었다.

태고당은 중국 광둥성의 제당업 건설과 남경국민정부의 설탕 전매 추진에서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찾아보기도 했으나 중일전쟁은 모든 것을 무화시켰다.⁰⁹²

자유시장은 대공황 아래서 사실상 사라졌다. 홍콩당은 일본당처럼 보호 받는 국내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시장의 변동에 훨씬 취약했다.⁰⁹³ 심지어 중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영국 식민지인 인도 시장에서 태고당은 일본당의 덤핑 전략과 싸워야 했다. 덤핑 가격의 과잉 당이 쏟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자급을 유지하고 있었던 다르당 시장까지 침식당하자, 줄곧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했던 인도가 마침내 1932년에 자국 제당업자의 보호를 내걸고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린 것이다.⁰⁹⁴ 태고당은 런던과 홍콩총독에게 같은 대영제국 식민지인 홍콩 태고당에 대해 우대관세를 적용해줄 것을 끈질기게 탄원했으나 효과는 적었다. 영국은 영국제국 내의 노동과 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우대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태고당은 자바당을 원료당으로 정제한 것인데, 자바당은 대영제국의 상품이 아니었다.⁰⁹⁵ 그뿐만이 아니다. 인도 총독부는 인도의 전통제당업자와 신흥 제당업 건설을 위해 제국이익보다 지역이익을 우선해 보호 관세의 벽을 낮추지 않았다. 태고당은 우대 혜택을 찾아 대영제국 내 시장인 인도, 페르시아만, 해협 식민지로 ‘국적’을 따라 재차 주력 시장을 조정하려 했으나, 그곳에서도 지역주의와 영국 본국 정제당 자본과 경쟁해야 했다.⁰⁹⁶

오늘날 홍콩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 銅鑼灣)와 퀴리베이(Quarry Bay, 鯪魚涌)를 거닐다 보면 홍콩 제당업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코즈웨이베이 킹스톤빌딩 앞 10미터 남짓밖에 안되는 좁은 골목에는 “당가(糖街, Sugar Street)”라는 뜻말이 붙어 있는데, 바로 1928년 폐업한 중화화차당국, 즉 이화당창이 있던 곳이다.⁰⁹⁷ 퀴리베이에 있던 태고당방은 1970년대까지 영업하였고 그 공장 터는

현재 고급 주택가와 쇼핑몰이 몰려 있는 태고성(Taikoo Shing, 太古城) 단지로 개발되었다. 태고성 지구에서 현재 “당창가(Tong Chong Street, 糖廠街)”로 명명된 골목 주위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제당공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태고당(Taikoo sugar) 브랜드로 설탕 및 감미료를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스와이어사는 1965년 이래로 코카콜라와 협력하여 음료 제조업자로 변신한 뒤, 오늘날 세계 최대의 코카콜라 제조사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 13개 주와 홍콩, 중국, 아시아 각지에 코카콜라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전후 최초의 제당회사인 제일제당(현 CJ)이 후에 식품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과 유사하다. 자유시장의 시대에 성장한 홍콩 제당업은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침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또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자기 변신에 성공했다. 이제 ‘일국양제’가 중반을 넘긴 지금, 중국 모델 아래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홍콩 자본주의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歷

강진아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근현대사, 동아시아경제사, 화교사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사의 시각에서 20세기 중국의 산업과 재정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동아시아경제사』, 『东亚华侨资本和近代朝鲜—广帮巨商同顺泰号研究』,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진아, 「16~19세기 동아시아 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따라잡기형 발전 모델의 모색」,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 강진아, 「1930년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해 진출과 남경 정부」, 백영서 편, 『중국 근현대사의 재조명 1』, 지식산업사, 1999.
- 강진아, 「20세기 초 동아시아 시장과 중국 제당업」,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 강진아, 「근대 아시아 해양과 과국적(跨國的) 상인 디아스포라의 형성—'양행(洋行)'에서 '구교(歐僑)'로」, 『역사학보』 232권, 2016.
- 강진아,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사탕의 유통구조와 변동—조선화상 동순태호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2, 2011.
- 이은희, 「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은희, 『설탕, 근대의 혁명』, 지식산업사, 2018.
- 정영구, 「1864~1904년 중국 설탕 시장의 성격—『中國舊海關史料』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1, 2015.
- 정영구, 「1902~1930년 중국 백설탕 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
- 정영구, 「개항과 전통시장—1880년대 이전 중국의 설탕 시장」, 『중국근현대사연구』 76, 2017.
- 정영구, 「1864~1930年 中國의 설탕유통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 姜玢亞, 「1930年代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 (日本)中國現代史研究會, 『近きに在りて』 第30號, 1996.
- クリスチャン・ダニエルス, 「中國砂糖の國際的位置—清末における在來砂糖市場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50-4, 1984.
- 大澤篤, 「1920年代日本における砂糖産業の展開」, 『經濟研究』 152, 明治学院大学, 2016.
- 濱下武志, 「中國近代經濟史研究—清末海關財政と開港場市場圈」,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9.
- 濱下武志·川勝平太編, 『アジア交易圈と日本の工業化 1500~1900』, 藤原書店, 2001.
- 濱下武志, 『香港—アジアのネットワーク都市』, ちくま新書, 1996(하세봉 외 옮김, 『홍콩』, 신서원, 1997).
-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2013(1997년의 재판).

- 杉山伸也, 「日本の経済進出とオランダの対応」, 杉山伸也, アン・ブースイアン・ブラウン編, 『戦間期東南アジアの経済摩擦』, 同文館出版, 1990.
- 杉山伸也, 「19世紀後半期における東アジア精糖市場の構造—香港精糖業の発展と日本市場」, 『徳川社会からの発展』, 同文館, 1989.
- 杉山伸也, 『日英経済関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 平井健介, 『砂糖の帝国—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学出版会, 2017.
- 柯志明, 『‘米糖相剋’ 問米糖相剋—日本殖民主義下臺灣的發展與從屬』, 群學出版有限公司, 2003(커즈밍 지음, 문명기 옮김,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미당상극 1895~1945』, 일조각, 2008).
- 姜抄亞, 「20世紀初の東亞市場和中國製糖業」, 『近代中國—經濟與社會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 张仲礼·陈曾年·姚欣荣, 『太古集团在旧中国』, 上海人民出版社, 1991.
- 鍾寶賢, 『太古之道—太古在華一百五十年』,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6.
- 周正庆, 『中国糖业的发展与社会生活研究—16世纪中叶至20世纪30年代』, 上海古籍出版社, 2006.
- Alexander Claver, G. Roger Knight, “A European role in intra-Asian commercial development: The Maclaine Watson network and the Java sugar trade c.1840~1942”, *Business History* Vol. 60(2), 2018.
- C. J. Robertson, “Cane-Sugar Production in the British Empire”, *Economic Geography* 6, no. 2, 1930.
- Fritz Georg von Graevenitz, “exogenous transnationalism: Java and ‘Europe’ in an organised world sugar market (1927~37)”,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20, 2011.
- G. Roger Knight, *Sugar, Steam and Steel: The Industrial Project in Colonial Java, 1830~1885*,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4.
- G. Roger Knight, “Exogenous Colonialism: Java Sugar between Nippon and Taikoo before and during the Interwar Depression, c. 1920~1940”, *Modern Asian Studies*, Vol. 44(3), 2010.
- J. H. Galloway, “The Modernization of Sugar Production in Southeast Asia, 1880~1940”, *Geographical Review* 95, no. 1, 2005.
- Kenneth Pomeranz,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M.E. Sharpe, 1999(박광식 옮김,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심산, 2003).
- Sheila Marriner & Francis E. Hyde, *The Senior John Samuel Swire 1825-1898: Management in Far Eastern Shipping Trades*,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67.
- Shinsuke Kaneko, “Inter-Asian competition in the sugar market, 1890~1939”, A.J.H. Latham and Heita Kawakatsu. ed., *Intra-Asian trade and the world market*, Routledge, 2006.

- Shinya Sugiyama, "Marketing and Competition in China, 1895~1932", S. Shinya Sugiyama and Linda Grove ed., *Commercial Networks in Modern Asia*, Routledge, 2001.
- Sidney W. Mintz, *Sweetness and Power*, Penguin books, 1985(김문호 옮김, 『설탕과 권력』, 지호, 1998).
- Sucheta Mazumdar, *Sugar and society in China: peasants, technology, and the world market*,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8(穆素洁 著, 叶篱 译, 林燊禄 校, 『中国的糖与社会—农民, 技术与社会』, 广东人民出版社, 2009).
- Vincent A. Mahler,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South Commodity Bargaining: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Sugar Agre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no. 4, 1984.

주

- 001 「근대 아시아 해양과 과국적(跨國的) 상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양행(洋行)’에서 ‘구교(歐僑)’로」, 『역사학보』 232권, 2016;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동아시아경제사』, 고려대학교아연출판부, 2018.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는 이를 영국 등 서구 자본이 기존 화교 네트워크에 승차하여 동아시아에 진출했다는 면에서, 개항을 서구가 동아시아를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며 개조하는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서구 자본이 동아시아 무역권에 “끼어든 것(參入)”으로 해석하였다. 濱下武志, 『香港—아시아의 네트워크都市—』, ちくま新書, 1996(하세봉 외 역, 『홍콩』, 신서원, 1997);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1997. 필자 역시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개항 이후 동아시아 무역권에 구축된 기선 항운, 전선, 금융결제 등 비즈니스 인프라는 서구 자본에 의해 선도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인프라는 기존 중국 상인과 인도 상인이 주도하던 아시아 교역 네트워크를 따라서 구축되었다. 또 이 네트워크를 따라 설립된 ‘구교’ 자본의 여러 회사들은 투자자 가운데 중국 상인과 인도 상인 자본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대표적 화교 집단인 광둥 화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서구 자본의 매관으로서 동반 성장하여 동아시아 각 개항장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면, 한쪽의 일방성을 강조하는 ‘참입’보다는 ‘동반 성장의 협조(partnership)’이며, 이들의 공조 관계 역시 동아시아 내부의 공업화에 따라 변질되어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 002 「1930年代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 (日本)中國現代史研究會, 『近きに在りて』 第30號, 1996; 「1930년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해 진출과 남경 정부」, 백영서 편,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 1』, 지식산업사, 1999; 「20세기 초 동아시아 시장과 중국 제당업」,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20世紀初的東亞市場和中國製糖業」, 『近代中國—經濟與社會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탕의 유통구조와 변동—조선화상 동순태호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2, 2011; 「从朝鮮華商同順泰文書来看近代潮州糖品的流通」, 陈春声·陈伟武主编, 『地域文化的构造与播迁—第八届潮学国际研讨会论文集』, 北京: 中华书局, 2012.
- 003 두 회사의 주주 구성과 중국인 자본의 중요성, 현재와의 연속성과 ‘구교’로서의 성격에 관해서는 강진아, 「근대 아시아 해양과 과국적(跨國的) 상인 디아스포라의 형성—양행(洋行)에서 ‘구교(歐僑)’로」, 『역사학보』 232권, 2016에 자세하므로 생략한다. 회풍은행(HSBC), 이화, 태고 등 대표적인 홍콩 영국 자본들은 개혁개방 초기 외자 도입과 중국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1997년 반환을 전후한 회사본부의 런던 및 바하

마로의 이전과 자본 재배치, 중국의 고속 성장 이후 홍콩 내 친중과 자본과의 경쟁 등 또 다시 월경적 자본과 국경 사이의 모순 속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위 논문에서 지면상 충분히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004 이은희는 「근대 한국의 제당업과 설탕 소비문화의 변화」(2012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로 역사학계에서는 제당업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관련 대중서 『설탕, 근대의 혁명』(지식산업사, 2018)을 출간하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정영구가 역시 처음으로 중국 해관 자료를 바탕으로 설탕 교역 네트워크에 관한 정밀한 박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구, 「1864~1930年 中國의 설탕유통연구」, 2016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도 시야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해가며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1864~1904년 중국 설탕 시장의 성격—『中國舊海關史料』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1, 2015; 「개항과 전통시장—1880년대 이전 중국의 설탕 시장」, 『중국근현대사연구』 76, 2017; 「전통중국의 설탕-면화교역과 근대세계체제」, 『동양사학연구』 139, 2017; 「1902~1930년 中國 백설탕市場의 性格」, 『중국사연구』 121, 2019.
- 005 논지와 논문은 셀 수 없지만 대표적인 저작으로 Sidney W. Mintz, *Sweetness and Power*, Penguin books, 1985(김문호 옮김, 『설탕과 권력』, 지호, 1998); Elizabeth Abbott, *Sugar: A Bittersweet History*, Penguin Canada, 2008을 꼽을 수 있다. 신대륙에서의 원료당인 조당 생산과 유럽에서의 정제당 가공 생산의 연쇄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 006 Kenneth Pomeranz,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M.E. Sharpe, 1999(박광식 옮김,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심산, 2003).
- 007 Sucheta Mazumdar, *Sugar and society in China: peasants, technology, and the world market*,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8. 중국어역은 穆素洁 著, 叶篱 译, 林燊祿 校, 『中国的糖与社会: 农民, 技术与社会』, 广东人民出版社, 2009으로 필자는 중국어본을 참조했다.
- 008 鍾寶賢, 『太古之道—太古在華一百五十年』,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6; 平井健介, 『砂糖の帝国—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学出版会, 2017;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 009 중국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张仲礼·陈曾年·姚欣荣, 『太古集团在旧中国』, 上海人民出版社, 1991; 周正庆, 『中国糖业的发展与社会生活研究—16世纪中叶至20世纪30年代』, 上海古籍出版社, 2006.
- 010 또한 한국어로 발표된 국내 연구 성과는 아예 세계 학계에 참고가 되지 못했다. 平井健介의 책에서 한 장을 차지하는 1935년의 중국 설탕 전매 시도에 관해서는 필자의 1999년 책(한글)에서 이미 상세히 분석되어, 내용이 거의 겹친다. 동아시아 시장에 관해서

도 2004년 책(한글)과 2006년 책(중국어)에서 상론했으나, 平井는 필자의 일본어로 발표된 글(1996년)만 참조하여 그에 따라 평가를 내리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平井健介, 앞의 책, 108쪽). 설탕 전매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료로 후속 연구를 준비 중이다.

- 011 1920~30년대 보호주의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와 자유무역으로 나타난 국제주의의 대립 속에서, 설탕 사례를 통해 설탕 이해 그룹 간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주의로 농업 보호주의에 대항했다는 연구는 시사적이다. Fritz Georg von Graevenitz, “exogenous transnationalism: Java and ‘Europe’ in an organised world sugar market (1927~37)”,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20, 2011, p. 257. 그러나 필자는 이 네트워크의 장점과 취약성을 정치적 시장적 환경 변화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012 G. Roger Knight, *Sugar, Steam and Steel: The Industrial Project in Colonial Java, 1830~1885*,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4, p. 11. 과학기술의 발명과 제당업에의 적용에 관한 자서한 서술은 穆素洁, 『中国的糖与社会: 农民, 技术与社会』, 2009, 456~458쪽 참조.
- 013 穆素洁, 『中国的糖与社会: 农民, 技术与社会』, 2009, 456쪽.
- 014 G. Roger Knight, op.cit., 2014, p. 15.
- 015 *ibid.*, p. 17.
- 016 류큐에서는 이미 18세기 초에 착즙에 수력을 사용했다는 연구도 있다. Robert LeRoy Innes, “The Door Ajar: Japan’s Foreign Trade in the Seventeenth Century”,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80, p. 511(G. Roger Knight, op.cit., 2014, p. 22에서 재인용). 화교에 의한 중국의 선진 제당 및 조선 기술의 동남아시아 전파에 대해서는 강진아, 「16~19세기 동아시아 무역권의 세계사적 변용—따라잡기형 발전 모델의 모색」,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참조.
- 017 平井健介, 『砂糖の帝国—日本植民地とアジア市場』, 東京大学出版会, 2017, 17쪽.
- 018 위의 책, 13쪽.
- 019 G. Roger Knight, op.cit., 2014, pp. 14~15.
- 020 *ibid.*, pp. 23~25.
- 021 Shinsuke Kaneko, “Inter-Asian competition in the sugar market, 1890~1939”, A.J.H. Latham and Heita Kawakatsu ed., *Intra-Asian trade and the world market*, Routledge, 2006, p. 97; G. Roger Knight, op.cit., 2014, pp. 26~27.
- 022 『臺灣製糖株式會社史』, 1939, 4~5쪽. 이와테현(1876년)과 홋카이도(1881년)은 국영 사탕무당 제당공장이고, 민간자본은 홋카이도에 1889년 세워진 삿포로 제당주식회사이다.
- 023 J. H. Galloway, “The Modernization of Sugar Production in Southeast Asia, 1880~1940”, *Geographical Review* 95, no. 1, 2005, p. 3.
- 024 G. Roger Knight, op.cit., 2014, p. 28.

- 025 *ibid.*, p. 20.
- 026 *ibid.*, pp. 30~31. 이와 달리 일본 학자 히라이(平井)는 자바의 설탕 생산량을 1840년에 4.7만 톤, 1870년에는 15.2만 톤, 1884년에는 39.4만 톤으로 집계하여 약간 차이가 있다. 平井健介, 앞의 책, 45쪽.
- 027 平井健介, 앞의 책, 17쪽; Shinsuke Kaneko, *op.cit.*, p. 97; 크리스찬·다니엘스, 「中國砂糖の國際的位置—清末における在來砂糖市場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50-4, 1984, 21쪽.
- 028 중국에서 런던까지 항로는 1830년대 쾌속 범선으로 90~105일 걸리던 것이, 1860년대 증기선 항로로 68일로 단축되었고, 범선보다 5배의 화물을 나를 수 있게 되었다. 증기선의 본격적 투입에 수에즈 운하의 개통(1869년)까지 이뤄지면서, 세계적으로 항로 단축과 운임 인하가 진행되었다. 1860~1880년 동남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운임은 최대 63%까지, 미국과 유럽 사이 운임은 평균 25%가 인하되었다. 穆素洁, 『中国的糖与社会—农民, 技术与社会』, 2009, 458~459쪽.
- 029 위의 책, 458~459쪽.
- 030 위의 책, 488쪽.
- 031 위의 책, 490쪽.
- 032 강진아, 앞의 논문, 2016, 78~81쪽.
- 033 이 상사들은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자본 진출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위의 논문 참조.
- 034 穆素洁, 앞의 책, 465쪽.
- 035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08~209쪽.
- 036 Shinya Sugiyama, “Marketing and Competition in China, 1895~1932”, S. Shinya Sugiyama and Linda Grove ed., *Commercial Networks in Modern Asia*, Routledge, 2001, p. 140; 汪敬虞, 「19世纪外国侵华企业中的华商附股活动」, 『历史研究』 1965年4期, 60쪽; 范毅军, 「广东梅流域的糖业经济」,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校按』, 1983年12期, 150쪽. 홍콩에는 1878년 동양당국(東洋糖局), 1882년 이원정당회사(利源精糖會社) 등 제당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지만, 동양당국은 1879년에 경매에 넘어갔고 이원정당회사는 자딘의 중화당국이 1886년에 매수했다. 중화당국은 태고당방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에 루존정당회사(Luzon Sugar Refining Co.)를 1882년에 설립하였다. 홍콩당의 재편 과정은 杉山伸也, 앞의 책, 208~216쪽 참조.
- 037 Shinya Sugiyama, *op.cit.*, p. 140; 穆素洁, 『中国的糖与社会—农民, 技术与社会』, 2009, 464쪽; 鍾寶賢, 『太古之道—太古在華一百五十年』,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16, 56쪽. 스와이어사의 오너인 존 스와이어(John Swire)의 사별한 첫 부인이 그리록(Greerock) 지역 출신으로 리버풀과 런던에 제당공장을 보유한 스코틀랜드계 유명 제당가문(Farrie)

- 출신이라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穆素洁, 위의 책, 464쪽.
- 038 鍾寶賢, 앞의 책, 57~58쪽.
- 039 상해는 1843년에 개항하여 1850년대 말에 벌써 광주를 누르고 중국 전체 수출입의 50% 이상을 처리했다. 홍콩은 1880년이 되면 중국 총수출액의 21%, 총수입액의 37%를 처리했다.
- 040 Alexander Claver, G. Roger Knight, "A European role in intra-Asian commercial development: The Maclaine Watson network and the Java sugar trade c.1840~1942", *Business History* Vol. 60(2), 2018, pp. 202~230; 平井健介, 앞의 책, 47쪽.
- 041 『時事新報』, 1922. 6. 17~1922. 6. 20.
- 042 George Watt, *The Commercial Products of India*, London: John Murray, 1908, p. 959(Shinsuke Kaneko, op.cit., p. 99 Table 6.8 Indian imports and exports of sugar의 재인용). 1 Cwt=50.8kg 기준으로 톤수로 환산함.
- 043 柯志明, 『'米糖相剋' 問米糖相剋—日本殖民主義下臺灣的發展與從屬』, 群學出版有限公司, 2003(커즈밍 지음, 문명기 옮김,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미당상국 1895~1945』, 일조각, 2008).
- 044 J. H. Galloway, "The Modernization of Sugar Production in Southeast Asia, 1880~1940", *Geographical Review* 95, no. 1, 2005, p. 18.
- 045 *ibid*, p. 18.
- 046 *ibid*, p. 19; 平井健介, 앞의 책, 17쪽.
- 047 중국의 설탕 수입량 추이에 관해서는 平井健介 책의 51쪽 표5(1902~17년), 79쪽 표6(1918~29년), 112쪽 표2(1928~35년)가 천 톤 단위로, 정영구, 「1902~1930년 중국 백설탕 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 121, 2019의 172쪽 표1(1891~1894년), 202쪽 부표1(1902~30년)이 담(=60kg) 단위로 정리하고 있다. 정영구의 통계는 해관통계에서 정제당과 백당만 합산한 것이라 1929년 65만 톤이고, 히라이 통계는 아마 각종 설탕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山下久四郎編, 『砂糖年鑑』(1935, 1936)을 인용하여 77만 7천 톤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 자료는 1929년 중국 설탕수입 총액으로 14,857,000담, 89만 1,420톤(實業部中國經濟年鑑編纂委員會編, 『中國經濟年鑑』 中, 商務印書館, 1934, 139쪽), 14,423,000담, 86만 5,380톤("Kuangtung Government Sugar-factory", *Chinese Economic Journal and Bulletin*, 1936. 2, p. 158)으로 제시하는데, 1929년이 피크인 것은 같다.
- 048 Shinsuke Kaneko, op.cit., p. 93; 平井健介, 앞의 책, 33쪽.
- 049 平井健介, 앞의 책, 17쪽.
- 050 위와 같음.
- 051 G. Roger Knight, "Exogenous Colonialism: Java Sugar between Nippon and Taikoo before and during the Interwar Depression, c. 1920~1940", *Modern Asian Studies*, Vol. 44(3), 2010, p. 479.

052 鍾寶賢, 앞의 책, 60~61쪽.

053 Sheila Marriner & Francis E. Hyde, *The Senior John Samuel Swire 1825~1898: Management in Far Eastern Shipping Trades*, Liverpool University Press, p. 103. 일본의 정제당시장에서 이화당과 태고당의 점유율과 순위는 연구자마다 파악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스와이어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쓴 마리너와 하이드는 1895년에 이화당과 태고당이 일본의 설탕(아마도 홍콩당) 수입 총량의 각각 71%와 29%를 장악하여 이화당이 우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쭈다 역시 마리너와 하이드의 책과 1888년 스와이어 고베 지점 직원의 증언을 인용해서 일본 시장에서 이화당이 우세했다고 쓰고 있다. 穆素洁, 『中国的糖与社会—农民, 技术与社会』, 2009, 496쪽 각주 2; Marriner and Hyde, op.cit., p. 103. 종보현(鍾寶賢)도 마리너와 하이드의 책과 마찬가지로 1894년 이화당과 태고당의 점유율이 54%, 46%였는데, 1895년에는 이화당이 70% 이상으로 30% 이하의 태고당을 압도하여, 일본 시장에서는 줄곧 이화당이 우세했다고 정리했다. 鍾寶賢, 앞의 책, 60쪽, 82쪽. 그러나 스키야마 신야는 1891~1894년 사이 이화당은 매년 약 1만 8천 톤(약 30만 담), 태고당은 약 3만 6천 톤(약 60만 담)을 수출해, 태고당이 일본 시장에서 두 배 정도 우세했으며 1892년부터는 이화당을 압도했다고 정리했다.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25쪽의 표 5-9를 참조. 필자는 스키야마의 분석을 지지하는데, 종보현과 마리너가 인용한 수치는 스와이어가 여러 정제당 중에 최고등급 상품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음을 지적할 때 인용한 것이다. 원래 최고등급에서는 이화당이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아 점유율이 높지만 1895년에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주의할 요하는 내용이다. 바로 뒤에 낮은 등급 정제당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강세이지만 분발하라는 서술이 나온다(John. Swire London→B&S Hong Kong, 1896. 2. 11, JSS 1-1-12, 런던대학 SOAS 소장 스와이어 당안). 스키야마는 모든 등급의 설탕 전체 점유율로 표를 만들었다. 그가 인용한 문서를 보면 등급별로 점유율 표가 따로 나오는데 확실히 최고 등급에서는 밀리지만 전체에서는 태고가 우위이다(Taikoo Sugar Refinery Agent Mackintosh→China sugar Refinery Co., 1895. 3. 11, 3. 13, JSS 1-2-7). 이 문서는 태고와 이화가 일본 시장에서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시장 담합을 논의하면서 왕복한 편지이다. 참고로 스키야마는 매킨토시의 편지를 3월 6일, 14일로 인용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다.

054 이하 태고당방의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Table 7.3. Accounts of the Taikoo Sugar Refinery, 1884~1935(Shinya Sugiyama, op.cit., 2001, pp. 146~147) 참조. 원출전은 런던대학 태고당안의 Taikoo Sugar Refinery, Account Books (JSSV 4/1-4/3); London A/c, Nos 1 and 2 (4/4-4/5)이다. 동일하지만 항목을 덧붙여 보완한 표가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97쪽 표 7-10이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055 Shinsuke Kaneko, op.cit., p. 94.

- 056 카네코 신스케는 홍콩당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탕무당보다 비쌌기 때문에 먼저 일본 시장에서 도래되었다고 보았는데(Shinsuke Kaneko, op.cit., p. 94), 1900년대의 정제당 수입 감소를 살펴보면 홍콩당과 유럽 사탕무당은 거의 같은 속도로 급감하여 일본 시장에서 나란히 퇴장하고 있다.
- 057 1863년에 1만 3,800톤의 설탕 수입으로 92만 엔이, 1895년에는 13만 6,800톤의 설탕 수입으로 1,332만 엔화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臺灣製糖株式會社東京出張所編, 『臺灣製糖株式會社史』, 1939, 3~4쪽.
- 058 平井健介, 앞의 책, 35쪽; Shinya Sugiyama, op.cit., p. 143; 穆素洁, 앞의 책, 459쪽.
- 059 Shinsuke Kaneko, op.cit., p. 95; 平井健介, 앞의 책, 34, 36쪽.
- 060 참여국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브뤼셀 협약 및 전전의 국제 설탕규약의 역사에 관해서는 Vincent A. Mahler,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South Commodity Bargaining: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Sugar Agre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no. 4, 1984, pp. 712~715 참조.
- 061 Shinsuke Kaneko, op.cit., p. 97.
- 062 平井健介, 앞의 책, 16, 34, 36쪽; Shinya Sugiyama, op.cit., p. 143. 1905년 실시된 ‘제당장 단속 규칙(製糖場取締規則)’은 제당회사가 설립될 경우 공장 주변의 일정 지역이 ‘원료채취구역’으로 그 회사에 할당되어, 농민이 재배한 사탕수수를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 063 平井健介, 앞의 책, 34, 51쪽; Shinya Sugiyama, op.cit., p. 143.
- 064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80쪽; 平井健介, 앞의 책, 34~35쪽. 1929년까지 대만 원당은 보조금 없이는 원가에서 자바 원당에 경쟁할 수 없었다.
- 065 Shinya Sugiyama, op.cit., p. 141.
- 066 平井健介, 앞의 책, 18쪽, 35쪽, 42쪽, 44쪽, 55쪽.
- 067 Shinsuke Kaneko, op.cit., p. 99; 平井健介, 앞의 책, 37~38쪽, 50쪽.
- 068 Shinsuke Kaneko, op.cit., pp. 93~94; 平井健介, 앞의 책, 38쪽, 62쪽.
- 069 『臺灣製糖株式會社史』, 1939, 3~4쪽, 42~43쪽.; 奥和義, 「明治後期の日本の関稅政策—明治32年, 明治44年の関稅改正をめぐる—」, 『山口經濟學雜誌』 39/3-4, 1990, 332쪽, 334쪽; 『時事新報』 1922. 6. 17~1922. 6. 20.
- 070 平井健介, 앞의 책, 43~44, 50, 61쪽. 일본제국 내의 대만당과 기타 식민지당의 생산은 平井健介, 앞의 책, 61쪽의 표1(1917~1928) 및 89쪽 표1(1928/29~1935/36) 참조.
- 071 Shinya Sugiyama, op.cit., pp. 143~144.
- 072 20세기 초 중국 설탕 수입의 종류, 입항지, 수입지에 따른 시계열적 통계는 杉山伸也,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275쪽의 표 7-1, 276쪽의 표 7-2, 279쪽의 표 7-3, 표 7-4가 자세하다.

073 平井健介, 앞의 책, 31쪽, 61쪽.

074 위의 책, 39쪽, 63~65쪽; Shinya Sugiyama, op.cit., p. 144. 조선제당은 1921년에 첫 생산을 했는데, 첫 해(1920/21년기) 성적은 938톤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사탕무 갈반병(褐斑病)으로 원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이후 계속 생산량이 줄었다. 平井健介, 앞의 책, 64쪽.

075 Shinya Sugiyama, op.cit., p. 148.

076 전쟁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1915~1917년의 점유율은 45~55%로 이전보다 약간 하락한 정도인데, 수입량은 홍콩당이 13만 7천 톤(1913)에서 9~10만 톤대로 확실히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당은 중국 진출 후 처음으로 200만담 대를 돌파하여(1917) 13만 2,600톤을 기록했다. 정영구, 앞의 논문, 202쪽 부표1 참조.

077 鍾寶賢, 앞의 책, 94~95쪽.

078 Shinya Sugiyama, op.cit., p. 145.

079 平井健介, 앞의 책, 46쪽, 50쪽.

080 위의 책, 71, 73쪽.

081 大澤篤, 「1920年代日本における砂糖産業の展開」, 『經濟研究』 152, 明治学院大学, 2016, 88쪽.

082 平井健介, 앞의 책, 18쪽, 64쪽.

083 위의 책, 77쪽; Shinya Sugiyama, op.cit., p. 153.

084 平井健介, 앞의 책, 79~80쪽.

085 Shinya Sugiyama, op.cit., p. 151; 鍾寶賢, 앞의 책, 95쪽.

086 平井健介, 앞의 책, 84~85쪽.

087 위의 책, 79쪽.

088 Shinya Sugiyama, op.cit., pp. 151~152.

089 平井健介, 앞의 책, 83~84쪽.

090 1925년 반영 민족주의운동은 실질적인 관세자주권 행사와 민족 산업 보호의 효과를 가져왔다. 손문의 광둥국민정부가 홍콩, 광주 대과업을 지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확보의 목적으로 이 운동을 계기로 어떻게 관세자주권을 실행했는지, 그에 대한 영국과 일본의 반발은 어땠는지에 관해서는 강진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의 지방 관세(專稅, special tax)에 관한 서술과 강진아, 「중화민국 시기 광둥성의 술·담배 과세 개혁과 재정 근대화」, 『동양사학연구』 138, 2018에 자세하다.

091 1910년대 초반 세계 설탕 생산량은 1,720만 톤가량이었으나, 1929년에는 2,720만 톤으

로 80%나 증가했다. C. J. Robertson, "Cane-Sugar Production in the British Empire", *Economic Geography* 6, no. 2, 1930, p. 135.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수요 폭락으로 감산이 이뤄졌으나(쿠바는 1929년 500만 톤의 피크를 기록한 뒤 1933년 200만 톤 이하로 감산했다) 재고는 줄지 않았다. 자바는 1930년 300만 톤의 피크를 맞았으나 1930년대에 200만 톤이 재고로 남았으며, 1934년 60만 톤까지 인위적 감산을 감행했으나 1941년에도 170만 톤을 생산했다. 그나마 쿠바당은 식민지-본국 사이의 수직적 시장, 즉 미국이 내수시장으로 기능하여 대공황기에는 판매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 시장이 감당해주었는데, 자바당은 외부 자유시장 의존형 경제로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G. Roger Knight, *op.cit.*, 2010, pp. 480~481; 平井健介, 앞의 책, 110쪽.

092 姜抄亞, 앞의 책, 1996; 강진아, 앞의 논문, 1999; 강진아, 앞의 책, 2004 등 참조.

093 홍콩당과 유사하게 자바당의 외부 시장 의존성과 취약성이 세계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극대화되는가에 관해서는 G. Roger Knight, "Exogenous Colonialism: Java Sugar between Nippon and Taikoo before and during the Interwar Depression, c. 1920~1940", *Modern Asian Studies*, Vol. 44(3), 2010가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

094 자유시장 원칙을 견지했던 영국 역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보호주의를 수용했다. 영국은 유럽 대륙 국가들과 달리 1874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 설탕에 관해서는 'free breakfast-table' 시대라고 하여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 후 낮은 수준으로 부과했던 수입세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폭등했고, 1919년에는 대영제국 식민지 상품을 관세 우대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대 덕분에 영국 정제당업의 원료당에서 대영제국 내 식민지당의 비중은 11%(1909-1913)에서 49%(1926)로 높아질 수 있었다. C. J. Robertson, *op.cit.*, pp. 150~151. 그래도 완전면세를 주장하는 식민지 원료당 생산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우대에 그친 것은 국내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제 정책 및 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095 B&S Hong Kong → JSS London, 1934. July. 9. JSS BOX 25A JSS 5-1-9. Sugar Refinery letters.

096 태고당의 시장 다변화와 영국의 대표적 제당자본 Tate & Lyle과의 경쟁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097 <https://industrialhistoryhk.org/sugar-street-causeway-bay/>.

접수 2020-01-30 ● 수정 2020-02-06 ● 게재확정 2020-02-10